

## 바다·숲·습지로 탄소 줄인다... 탄소흡수원 확충 해법 한자리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 여수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 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산림청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산림·해양·습지 등 자연 기반 탄소흡수 확대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3일 여수 신라스테이(여수 수정동 소재)에서 산림·해양·습지 등 자연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탄소흡수원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법으로 자연을 활용한 탄소흡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림과 해양, 습지 생태계 등 자연기반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 협력 나무심기, 유희부지 조립, 갯벌 식생복원 등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관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분야별 탄소흡수원 정책 및 연구 성과가 공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육상 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과 시사점을,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 정책 동향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정책과 유희부지 조립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소개한다.

\* 염생식물(갈대, 칠면초 등), 해초류(잘피) 등 해양·연안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

이어지는 참가자 토론에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흡수원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 연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 토론회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황현정 (044-201-7542)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담당자	사무관	최종일 (051-773-5327)
산림청 산림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관호 (042-481-4130)	
		담당자	사무관	이우리 (042-481-4199)

□ **개최 배경**

-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탄소흡수원 정책·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 (행사명)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26. 4. 23.(목) 14:00~16:00 / 여수 신라스테이 6층 미팅룸
- (주요내용)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책 우수사례·성과 공유 등
- (참석자) 기후부, 해수부, 산림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 **행사 주요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4:00~14:05	• 개회사
14:05~14:30	• 기조 발표
14:30~15:30	• 발제
	- (세션1: 기후부) 한국 국립공원 육상 생태계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 평가 및 시사점 (국립공원연구원 박홍철 박사)
	- (세션2: 해수부) 블루카본 정책 동향 및 연구추진 성과(국립군산대학교 권봉오 교수)
15:30~15:55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김보현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 - (패널) 정환진 자연생태정책과장, 박홍철 박사, 권봉오 교수, 강완모 교수
15:55~16:00	• 폐회